

간호학생의 르보이에 분만참여 경험

김 미 종

한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Nursing Students' Lived Experiences of Attending LeBoyer Birth

Kim, Mi Jo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lived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during Leboyer. **Methods:** Eleven senior nursing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April to June in 2010. After completing informed cons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ll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verbatim before analyzing. Nursing students were asked about their observational experiences during Leboyer births.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Colaizzi style. **Results:** Interviews revealed 4 categories and 9 themes. The categories were: 'Respecting and blessing new baby', 'Keeping calm and joyful birth atmosphere', 'Reminding the meaning of nursing', 'Comparing Leboyer and convenience birth and making up their mind'.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observation of Leboyer birth is helpful for nursing students in order to have positive impression about childbirth.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hat an exploration of the experiences of women and their husbands during Leboyer births would be helpful. On the basis of this study, it is concluded that the Leboyer birth, which focuses on baby's human right, should be introduced women's health nursing field as an effective birth strategy.

Key Words: Qualitative research, Delivery, Nursing students, Nursing Educa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학과 의료의 발달과 더불어 현대화된 분만환경은 모성 및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분만과정에 의료진의 지속적인 개입과 다양한 태아감시 장치 등을 적용하게 하였고 분만을 자연적인 상태가 아닌 인위적이며 의료인이 중심이 되는 사건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제왕절개술의 시술도 증가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Park et al., 2000). 이에 대한 반성의 움직임으로 2000

년대 이후 분만환경은 주인공인 여성과 가족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또 일각에서는 탄생하는 신생아에 대한 배려에 초점을 맞추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Buckley, 2009; Kim, 2003; Leboyer, 2009; Park et al., 2000).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르보이에 분만으로 1971년 프랑스의 의사 프레데릭 르보이에가 폭력 없는 탄생(Birth without violence)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발표하면서 세상에 소개되었다(Leboyer, 2009; Pettle, 1978). 르보이에 분만방법은 분만대나 테이블, 밝은 조명, 수술 장비로 가득 찬 전통적인 분만실에서 의료진의 주도하에서 가족과 분리된 채로 분만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출산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본다. 어두운 자

주요어: 질적연구, 분만, 간호학생, 간호교육

Corresponding author: Kim, Mi Jong

Department of Nursing, Hannam University, 1646 Yuseong-daero, Yuseong-gu, Daejeon 305-811, Korea.
Tel: +82-42-629-8895, Fax: +82-42-629-8883, E-mail: heetak01@naver.com

- 이 연구는 2011년도 한남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Hannam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11.

투고일: 2012년 2월 6일 / **수정일:** 2012년 3월 15일 /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16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궁 속 양수에 떠서 탯줄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던 태아가 분만과 동시에 갑작스럽게 스스로 호흡을 해야 하며 중력에도 적응해야 하며, 무엇보다 분만장의 과도한 조도의 조명과 소음 등 환경변화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전통적 분만의 과정에 발생하는 이러한 환경적 자극을 신생아에 대한 폭력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의료인의 편이가 아닌 출생하는 신생아에 대한 배려의 입장으로 분만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Leboyer, 2009). 르브아이에 분만은 신생아의 입장을 옹호하고 신생아의 시각에서 분만을 돕기 때문에 이를 인권분만 또는 평화로운 분만으로도 부르기도 하며 최근 르브아이에 분만법을 시행하는 병원들이 생겨나면서 점차 각광을 받고 있다(Buckley, 2009; Nam, 2011; Park et al., 2000).

한편 간호현장에서 대상자들의 간호문제를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여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학습요구를 높이고 심리적, 사회적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실습 교육은 경험적인 간호학문의 발전에 중요하며 효율적이고 질적인 임상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Hah, 1994; Kang, Cho, Roh, Boo, & Ahn, 2006; Kim et al., 2011; Sharif & Masoumi, 2005). 특히 분만과정과 이에 관련된 간호를 주로 관찰하게 되는 분만실 실습은 분만에 대한 생각이나 의미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며 이때의 간접 경험으로 형성된 분만에 대한 긍정적인거나 부정적인 가치관이 추후 학생자신의 분만이나 또는 분만하는 산부의 간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호학생들이 분만실습 과정에서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바를 파악하여 그들이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하다(Cho, 1994; Jung & Park, 2011).

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과 관련된 연구로는 간호학생이 분만실 실습현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Kang, 1989), 실습 후 분만 과정에 대한 간호학생의 심리적 반응(Cho, 1994), 아직 모성간호학을 배우지 않은 간호학 전공 여대생이 인지한 분만의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Yeo, 2001)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생명 탄생이 감격스러움과 분만 후에 편안함 등의 긍정적인 느낌 이외에도 분만에 대해 무섭고, 끔찍하며, 아프고, 소리 지르고, 징그럽고, 피냄새 나고, 외롭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등의 부정적인 의미를 상당 부분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Cho, 1994; Kang, 1989; Yeo, 2001),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대부분 여성중심 및 가족분만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수행된 연구이므로 현재의 달라진 분만환경에서 해석하고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르브아이에 분만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근 발표된 르브아이에 분만 참여군과 비참여군을 비교한 Park (2010)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더구나 실제 생생한 경험을 탐색하는 질적 연구로는 연구된 바가 없는 실정이어서, 르브아이에 분만에 대하여 실제 분만했던 부부의 경험을 비롯하여 분만에 참여했던 의료진 및 참여자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과 가족 중심의 새로운 중재인 르브아이에 분만과정에 참여했던 간호학생들의 경험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르브아이에 분만에 참여한 간호학생들의 경험은 어떠한가?’이며 구체적으로 ‘르브아이에 분만을 본 경험은 어떠했습니까?’, ‘이 분만실습이 본인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이다. 르브아이에 분만에 대한 간호학생의 경험을 편견 없이 이해함으로써 그 의미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간호학생들이 이 분만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고 분만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을 형성하도록 하며, 이는 여성건강 간호학 교육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르브아이에 분만에 참여한 간호학생들의 경험을 현상학적 접근으로 밝혀 학생들의 실습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의 탐구방법 중에서 질적 간호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간호학생의 지각과 정서를 자료로 사용하며, 심층면담과 실습일지 기록 등을 연구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질적 연구방법 중 특히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간호학생들의 르브아이에 분만참여 관찰을 통한 살아있는 체험(lived experience)을 다룸으로써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에 의미를 밝혀내는 방법이며 연구자가 편견을 버리고 접근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관점에서 진솔하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Choi, 1985; Shin et al., 2004)이므로 다른 간호학적 지식탐구의 방법보다도 본 연구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다. A시에

위치한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이 3주간의 모성간호학 실습기간이 끝난 후 다음 차례의 실습기간 중 집담회 참석을 위하여 학교에 왔을 때 학생의 일정이 끝난 후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만나 심층면담을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습기관의 회의실에서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모든 면담은 회의실, 연구실 등 조용한 장소에서 연구자와 단독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의 횟수는 1~2회였으며 2회의 심층면담을 한 학생은 3명이었다. 면담시간은 보통 1시간~1시간 반 정도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에 대한 판단 중지를 위해서 선입견을 가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연구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야기를 끊거나 끼어들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더 이상 새로운 의미의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자료수집을 중지하였다.

3. 학생들이 참여한 르브외에 분만실습 환경

학생들은 먼저 종합병원 분만실에서 일반적인 분만을 경험한 후 르브외에 분만이 시행되는 여성전문병원에서 실습하였다. 르브외에 분만이 진행된 분만실에서는 산부와 남편, 그리고 의사, 간호사, 간호학생 2~3명이 참여하였다. 소리에 대한 배려로 산부가 골라온 조용한 음악을 틀었고, 그 외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빛에 대한 배려로 어두운 조도(100~200 Lux)의 조명을 사용하여 형체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촉각에 대한 배려로 아기가 출생하면 엄마 배 위에 아기를 몇 분 정도 없어 놓고 엄마 젖을 빨도록 하였다. 호흡에 대한 배려로 태줄의 박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르고, 중력에 대한 배려로 37℃ 정도의 따뜻한 물이 담긴 욕조에 신생아를 잠시 담그고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였다. 간호사는 분만 전에 남편이 분만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하고 연습하도록 하였으며, 남편은 산부의 곁에 계속 머물면서 산부를 지지하였고, 신생아를 따뜻한 욕조에 담근 상태에서 눈을 맞추거나 신생아의 태줄을 자르기에 참여하였다.

분만에 참여한 간호학생들은 가족 중심의 분만 분위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필요시 산부에게 지지간호를 제공하였으며, 간호사를 도와 분만환경조성과 분만 후 중재에 필요한 물품을 점검하고 준비하였다.

4. 연구참여자의 선정 및 윤리적인 고려

본 연구는 르브외에 분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 중에서 편의표출 하였다. 일반적인 분만과 르브

외에 분만을 모두 다 실습한 학생들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고위험이 아닌 산부 또는 아기의 르브외에 분만진행 사례를 최소 1사례에서부터 최대 5사례까지 관찰한 적이 있는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의 나이는 만 21~27세 범위로 평균 22.28세이며, 전부 미혼이었으며, 남학생 2명, 여학생 9명이었다.

연구참여 학생의 윤리적인 고려를 위하여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 면담내용이 녹음 될 것임을 미리 설명하였다. 녹음된 면담은 연구가 끝날 때 까지 참여자의 이름이 아닌 번호를 붙여 익명으로 필사되고 관리될 것이며 비밀이 보장되며, 그리고 연구가 끝나면 폐기될 것임을 말하였다. 또한 연구의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중간이라도 언제든지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그만 둘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들 중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서면 동의를 한 간호학생 11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중간에 탈락한 사람은 없었다.

5. 연구자 준비

질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연구자는 기술과 이해를 가지고 상황에 반응하여야 하므로 연구자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Choi, 1985). 본 연구자는 대학원 박사과정 질적 연구방법론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수강하였으며 초산모 및 시험관아기 시술경험자를 대상으로 2편의 질적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다. 또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포함하는 간호 연구 교과목을 학부와 대학원에서 6년간 강의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질적 연구방법과 특히 현상학적 간호연구에 관한 책을 숙독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초기단계 면담 시 분만실습 및 모성 간호 실습 경험 및 임상실습 교육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의도적으로 피하여 연구대상자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개방적이고 비구조적인 질문과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면담이 끝난 후 연구결과를 질적 연구 경험이 많은 교수 2인에게 문의하여 단독연구로 일어날 수 있는 편견의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6. 자료분석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다양한 분석방법이 있으며, 특히 Colaizzi가 제시한 분석방법은 개인적인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자의 공통적인 속성에 초점을 맞춘 방법이며 참여자가 진술한

Table 1. Nursing Students' Lived Experience of the Attendance in LeBoyer Birth

범주	주제	의미있는 진술
존중과 배려 속에서의 가족축제	새로 태어나는 아기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느껴짐	엄마 뱃속과 다른 외부 환경에 천천히 적응하도록 신생아를 도와줌. 신생아에 대한 존중. 어머니가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랑. 세상에 태어난 태아를 배려해준다는 점. 탄생의 첫 순간을 아기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하는 데... 그동안 태어나는 아기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분만법. 정말로 신생아를 위한 분만인 것 같다. 신생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전에는 생각해 본적이 없음.
	가족이 중심이 되는 분만	분만진통에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 산부와 손을 잡아주고 함께 호흡하는 남편의 모습. 진통할 때부터 산부의 손을 잡아 주거나 호흡을 도와주고 아기 낳고 나서는 탯줄을 자르고 신생아를 돌보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아빠. 아기의 탄생에 아빠로서 참여했다는 생각. 산부가 진통하는 것을 옆에서 계속 머물면서 함께 느끼는 아빠. 아이를 함께 낳는 것. 가족됨을 만드는 것. 아기의 아빠와의 눈맞춤. 아빠의 입장에서 아이를 씻기면서 축약적으로 친밀감을 쌓기. 그래서 가족분만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 출산은 엄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같이 하는 축제. 힘들었을 산모가 아이를 보고 해맑은 웃음. 아버지도 어색함도 없이 사랑스럽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대함.
	이론과 실제의 일치에 따른 경이로움	르바이에 분만에 대해 배웠을 때의 신선함을 느낌. 수업시간에 배운 대로 실제로 르바이에 분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놀랍고 감격스러움. 의료인의 조그만 배려와 관심만으로도 신생아가 행복한 세상 맛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멋지게 느낌. 산부의 남편이 함께 참여하는 분만은 처음이라 말로만 들었던 감동을 실제로 느낌. 좋은 말들을 쉴 새 없이 해 주는 부부모습에 가슴뭉클. 손을 잡아주고 함께 호흡하는 산부 남편의 모습에 감동함.
조용하고 경건한 분만 분위기	조용하고 경건한 분만실	처음 병실에 들어갔을 때 가장 놀란 것은 조명. 어두운데 익숙해지니 마음이 안정됨. 분위기를 더욱 경건하게 만드는 느낌. 눈이 적응할 때 까지 시간이 걸릴 정도로 어두움. 잔잔한 음악과 함께. 선생님들은(의료진) 눈짓으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산부에게도 편안함을 주는 소리로 말함. 산부 본인도 소리 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함. 분만 하면 떠오르는 고통... 비명이 아니라... 조금 어둡고 안정된 공간에서 느끼는 편안함. 산부들이 선택한 분만이므로 마음의 준비를 더 하는 듯 보임. 초산인 산부인데도 의연하게 대처함. 생각보다 아주 조용하게 진행된 분만. 진통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거 없이... 잘 해냈다는 그런 느낌. 성취감.
	아기 울음대신 미소를 보게 됨	신생아가 울지 않고 편안해 보여 신기함. 태어나서 얼마 울지도 않는 신생아. 신생아가 조금 울다가 욕조에 들어가서 아빠가 태명을 불러주자 딱 그침. 물속에서 살짝 눈을 떠서 편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아기. 보통 신생아처럼 날카롭고 높은 고톤스러운 울음소리는 아님. 신생아의 울음 톤이 다름. 소리도 훨씬 작고 간간히 멈추기도 하면서..
간호의 의미를 되새김	의료진의 편리함을 산부와 아기에게 양보함	의료진에게는 작은 배려이지만 아이에게는 큰 배려가 됨. 환자나 아기를 위해 의료진이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것이 특별한 것 같음. 이런 배려(어둡고 더운 환경)가 의료인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 산부와 신생아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르바이에 분만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고 한 가정의 축복인 출산을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의료인)들의 배려가 느껴짐. 신생아에 대한 시가를 배려하기 위해서 조명을 상당히 어둡게 했다는게 의료인 입장에서 되게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 의료진들이 소리를 작게 소근거리면서 말할 때.. 아기의 첫 순간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태도가 인상적. 의료진의 편의성을 조금은 양보하면서 아기와 산부에 대한 배려를 하는 분만법.
	간호의 의미를 되새겨 본 시간	간호영역이 말 못하는 태아와 같은 존재에도 미친다는 것이 흐트. 신생아의 입장에서 간호를 제공함. 수간호사선생님 르바이에 분만에 숨은 주역. 분만 전부터 르바이에에 맞는 분위기를 만드시고 산부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해는 역할. 아빠들의 역할을 알려주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교육자 조정자의 역할을 보았음.
기존의 분만과 비교됨	일반적인 분만방법의 문제점 인식	기존의 전통적인 분만은 수술실 정도로 밝은 불빛에서 시끄러운 기계소리에 산부의 신음소리, 의료진의 큰 목소리가 가득 찬 공간. 어두운 자궁에서 막 나온 아이에게 보통이상의 밝은 조명을 비추었던 것이 지나치다는 생각.
	미래에 자신도 선택해보고 싶은 분만법	실습하면서 생각이 바뀜. 아기를 낳지 않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기를 낳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음. 이런 배려있는 분만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될 때 꼭 이 분만법으로 하고 싶음. 앞으로 결혼을 한다거나 가족들이 분만을 한다면 가족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음. 르바이에 분만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됨.

내용 가운데 공통적인 진술을 묶어 단계적으로 추상화시키거나 가는 방법이다(cited in Jeong, 2010).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 참여자의 개별적 상황구조적인 경험의 독특성보다는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여 표현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고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여 이 분석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료를 분석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한 내용을 여러 번 듣고 필사본을 수차례 읽은 후 연구참여자의 내포된 의미를 공감하고자 노력하면서 의미있는 문장과 구를 밑줄을 그어 선택하였고, 둘째, 의미있는 문장과 구는 중복되는 표현을 통합 또는 삭제 및 정리하여 의미있는 진술로 도출하였다. 셋째, 다시 각각의 의미있는 진술에서 원자료를 숙독하여 의미를 되새기면서 중심의미를 찾아내었다. 넷째, 중심의미를 주제와 주제모음군(범주)으로 조직하였다. 현상학적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에게 자문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원자료로 돌아가 의미를 떠올려 보았다. 다섯째, 모든 자료의 분석결과를 통합하여 본질적인 의미를 최종적으로 범주화하여 구성하였다. 여섯째, 각 범주에 따라 주제에 관련된 진술을 구성하여 르쵸비에 분만에 참여하여 실습하는 간호학생들의 경험을 통합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의 연구에 참여했던 2명의 학생들에게 범주화된 진술문을 읽어 보도록 하여 자신들이 느꼈던 의미의 공감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르쵸비에 분만 실습을 한 간호학생의 경험은 [존중과 배려 속에서의 가족축제], [조용하고 경건한 분만 분위기], [간호의 의미를 되새김], 그리고 [기존의 분만과 비교됨] 등 4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9개의 주제로는 <새로 태어나는 아기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느껴짐>, <가족이 중심이 되는 분만>, <이론과 실제의 일치에 따른 경이로움>, <조용하고 경건한 분만실 분위기>, <아기 울음대신 미소를 보게 됨>, <의료진의 편리함을 산부와 아기에게 양보함>, <간호의 의미를 되새겨 본 시간>, <일반적인 분만방법의 문제점 인식>, <미래에 자신도 선택해 보고 싶은 분만법>이 추출되었다.

각 주제에 따른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의미구조는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범주 1. 존중과 배려 속에서의 가족축제

주제 1. 새로 태어나는 아기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느껴짐

르쵸비에 원리에 따른 분만과정 동안 신생아에 대한 간호

를 관찰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조력과정은 아기에 대한 존중 또는 아기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자궁 속에 있던 아기에게 어두움을 지켜주고 제대의 박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 후에 탯줄을 자르며,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고 출산 후 엄마의 젖을 빨면서 촉각적으로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며 또한 중력에 대한 적응으로 양수와 유사한 따뜻한 물에 잠시 노출되는 등의 적응에 대한 조력과정은 신생아의 자궁 밖 세상에 대한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조명을 어둡게 하고 호흡에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기다려주었다가 탯줄을 자르고, 따뜻한 욕조 물에 담그어 아빠의 손으로 아기를 씻기고... 엄마 배속과 다른 외부 환경에 천천히 적응하도록 아기를 도와주는 이런 것 모두가 한마디로 아기에 대한 존중이죠.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세상에 태어난 태아를 배려해준다는 점에서 탄생의 첫 순간을 아기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들은 르쵸비에 분만에 대한 실습과정을 지켜보면서 태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느꼈다고 하며 지금까지의 분만에서 생각하지 못한 ‘태아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라는 사고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 보통의 분만에서는 산모의 고통에 대해서는 동정하고 공감해왔지만 태어나는 아기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이 분만법을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 이 분만은 정말로 아기를 위한 분만인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골반 그 비좁은 곳을 나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 자신도 예전에는 거의 생각해 본적이 없었거든요.

주제 2. 가족이 중심이 되는 분만

간호학생들은 분만과정에 가족이 참여한다는데 많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사실상 남편의 참여가 르쵸비에 분만법의 핵심적 본질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르쵸비에 분만이 가족분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가 도출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감염을 이유로 남편이 분만실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탯줄을 자르는 잠시 동안만 분만실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최근 일반분만의 방식과는 다르게 르쵸비

에 분만에서는 진통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분만동안도 계속 남편이 산부를 곁에서 지지하고 있었다. 간호학생들은 산부가 남편의 충분한 지지를 받으며 분만을 하는 것을 가족이 중심이 된 축제로 보았으며 갓 태어난 신생아와 함께 한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이 강화되는 기회가 된다고 하였다.

- 분만진통에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 산모와 손을 잡아 주고 함께 호흡하는 남편의 모습이 가슴 뭉클했어요.

- 아빠의 역할이 진통할 때부터 산모의 손을 잡아 주거나 호흡을 도와주고 아기 낳고 나서는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돌보는 직접적인 역할들을 다 하니까 아기의 탄생에 자신이 아빠로서 참여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탯줄 끊는 연습을 미리하고 산모가 진통하는 것을 옆에서 계속 머물면서 함께 느끼기 때문에 함께 낳는다고나 할까? 가족 됨을 만들어 간다고나 할까?

특히 분만 후 신생아의 중력에 대한 배려를 위한 아기아빠의 노력과정에서 신생아에 대한 아빠의 역할을 분명히 볼 수 있었는데 간호학생들은 아기아빠가 아기의 태명을 부르며 양수와 같은 느낌의 따뜻한 물에 아기를 잠시 담그고 있는 동안 교류되는 아기와 아빠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 아빠가 직접 아기의 탯줄을 자르고 아기욕조에서 아기에 태명을 불러줬을 때 그걸 알아들었는지 아기가 아빠와 눈맞춤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죠.

- 제 생각에는 중력에 대한 배려로 아이 목욕물을 준비해 아빠와 함께 노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아이로서는 익숙한 양수와 같은 환경으로 주위 적응 시간을 가질 수도 있으면서 아빠의 입장에서 아이를 받치고 씻기면서 촉각적으로 친밀감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후략)

힘든 분만이었지만 남편의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산부와 신생아에게 어색하지만 말을 걸고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남편, 그리고 배려와 존중을 받으며 갓 태어난 아이가 이루어 가는 출산의 과정을 지켜보며 간호학생들은 가족중심 간호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 아기 아빠가 의료진의 설명대로 탯줄을 자르고 산모에게 “고생했다, 고맙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래서 가족분만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남편을 들어오게 해서 산모를 잡아주도록 하고, 둘이 같이 땀을 흘리며 출산을 기다리는 거를 보면서 ‘출산은 엄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같이 하는 축제다.’라는 station의 문구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초산이고 분만과정이 힘들었을 텐데 산모가 아이를 보고 해맑은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표정만 보면 아무 아픈 거도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도 분만과정에 내내 같이 있어서 그런지 어색함도 없이 사랑스럽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대하고...

주제 3. 이론과 실제의 일치에 따른 경이로움

임상실습이란 교과서에서 이론으로 배운 지식을 임상현장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살아있는 교육이다. 학생들은 분만의 한 방법이자 관점인 르바이에 분만법이 배웠던 이론과 원칙이 거의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며 이 분만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였다.

- 르바이에 분만에 대해 배웠을 때의 신선함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을 위한 존중이 느껴졌기 때문에. 근데 분만을 실제로 직접 보면서 그런 게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켜지면서 분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놀랍고 감격스러웠어요.

- 수업시간에 배운 것과 어쩔 거의 똑같이 분만이 진행되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 별다른 큰 장치나 설비 없이(의료인의) 조그만 배려와 관심만으로도 새 생명이 행복한 세상맛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간호학생들을 가장 감동시켰던 것은 새 생명의 탄생과 분만과정에서 보여준 부부의 팀워크와 아이를 향한 사랑과 배려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감동을 느끼면서 르바이에 분만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분만은 처음이라 말로만 들었던 감동을 정말 실제로 느껴보게 되어 나도 모르게 분만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 좋은 말들을 쉴 새 없이 해 주는 부부의 모습에 가슴이 너무나도 뭉클해서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 손을 잡아주고 함께 호흡하는 남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범주 2. 조용하고 경건한 분만 분위기

주제 4. 조용하고 경건한 분만실

간호학생들은 르바이에 분만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였다. 특히 소리, 빛과 온도의 환경을 언급하였는데 어둡다고 할 만큼 낮은 조도를 유지한 분만실 환경은 산부와 더불어 간호학생에게도 편안함과 더불어 경건한 느낌을 갖도록 하였다.

- 분만 준비가 시작되어 처음 병실에 들어갔을 때 가장 놀란 것은 조명이었어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처치를 한다는 것을 예전에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두운데 익숙해지니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 어두운 조명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분위기를 더욱 경건하게 만드는 느낌이었어요.

- 분만실에 막 들어가서 눈이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정도로 어두웠던 정도로...

분만실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진통에 대한 신음소리, 비명 소리 대신 르바이에 분만실에서는 산부를 이완시킬 수 있는 조용한 배경음악과 의료진들의 눈짓언어 또는 소곤소곤한 말 소리가 있었다. 많은 간호학생들이 태아와 신생아에게 지나친 소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각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이를 조성하려는 의료진들의 노력도 느낄 수 있었다.

- 우선 어둑어둑한 방에서 잔잔한 음악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았고 또 선생님들은(의료진) 눈짓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 산모에게도 편안함을 주는 소리로 말하고 산모 본인도 소리 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아이는 지금까지 뱃속에서 엄마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만 들어왔잖아요.

- 분만하면 떠오르는 고통.. 비명이 아니라... 조금 어둡고 안정된 공간에서 느끼는 편안함이 있었어요.

이러한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을 위해서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산부의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몇몇 참여 학생의 경우 자신감과 자기 통제력으로 준비된 산부의 마음가짐을 보면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 산모들은 자신들이 르바이에 분만을 하고 싶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지 자기가 먼저 마음의 준비를 더 하신 거 같았어요. 초산인 산모인데도 정말 의연하게 대처하셨거든요.

- 산모가 간호사와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심호흡을 잘 해서 그런지 분만이 생각보다 아주 조용하게 진행되어 의외였어요...(중략)

- 진통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거 없이 정말 훌륭하게 낳으셨거든요. 거기에 본인도 자랑스러움을 느끼시는 거 같았고 자연분만을 잘 해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성취감이나 그런 것도.

주제 5. 아기 울음대신 미소를 보게 됨

11명의 학생 중 7명의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던 내용으로는 ‘아기의 울음 대신에 미소를 목격함’이었고 이에 대해 경이감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점은 주로 중력에 대한 배려로서 양수와 같이 욕조의 물 안에 신생아를 띄울 때 자주 관찰할 수 있으며 신생아가 울음을 그치며 때로는 눈을 뜨거나 엄마아빠에게 미소를 보낸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미소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서의 미소는 아닐지라도 엄마아빠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히 사랑스러우며 간호학생들에게도 아기에게 주어진 분만 후 중재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아기의 미소에 놀라움과 신기함을 표현하였다. 학생들은 신생아를 잠시 동안 따뜻한 물에 담그는 중재가 그동안 양수 속에 머물러 있었다가 갑작스럽게 중력의 충격을 받게 되는 신생아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편안함을 주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출산 후 아기의 탯줄을 바로 자르지 않고 조금 기다려준 뒤에 아빠에게 자르게 했고 따뜻한 물에 아이를 넣어 양수에 느낌을 주도록 했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아기가 울지 않고 편안해 보였다는 거예요.

- 제가 본 아이는 신기하게도 태어났는데도 얼마 울지를 않았어요. 조금 울던 것이 욕조에 들어가서 아빠가 태명을 불러주자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살짝 눈을 떠서 편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태어나서 눈도 못 뜨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 아이는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처음으로 보는 세상을 둘러보는 거예요.

- 태아가 울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보통 분만한 아기처럼 날카롭고 높은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는 아니었어

요. 르바이에 분만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울음 톤이 다른 것 같았어요. 우는 소리도 훨씬 작고 간간히 멈추기도 하면서...

범주 3. 간호의 의미를 되새김

주제 6. 의료진의 편리함을 산부와 아기에게 양보함

간호학생들은 의료인이 의료 시술할 때 불편함을 감수하고 신생아를 위해 조명을 상당히 어둡게 하거나 호흡에 대한 배려를 위해 분만 후 호흡의 적응시간을 기다려 주었다가 천천히 진행하면서 탯줄을 자르는 모습에 대해 언급하였다. 기존의 의료인이 가지는 권위적인 이미지가 아닌 자신의 편의를 기꺼이 양보하며 대상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상자를 진정으로 생각해 주는 의료인의 모습에서 간호학생들은 대상자를 위하는 의료인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고 특별한 감동을 경험하였다.

- 제대박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 폐로 숨쉬는 것에 적응한 다음에 제대를 자르는 거. 이런 것이 의료진에게는 작은 배려이지만 아이에게는 큰 배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료나 시술을 잘하기 위해서 의료진의 편리를 추구하고 의료진은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은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분만에서는 환자나 아기를 위해 의료진이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것이 특별한 것 같아요.

- 이런 배려(어둡고 더운 환경)가 의료진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르바이에 분만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고 한 가정의 축복인 출산을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의료인)들의 배려가 느껴졌어요...

간호학생들은 르바이에 분만 시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분만을 진행하는 의료진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때의 빛의 밝기를 '눈이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정도', '아기의 형태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고 표현하여 의료진의 어려운 정도를 설명하였다.

- 막 들어가서 눈이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정도로 어두웠던 정도..

- 아기 형태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중략). 나중에 episiotomy 할 때는 부분조명을 더 추가하시더라고요.

- 아기에 대한 시각을 배려하기 위해서 조명을 상당히 어둡게 했다는 게 의료인 입장에서 되게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걸 감수하고도 그렇게 해주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또한 간호학생들은 분만 후 가족에게 주어진 첫 만남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료진들이 소리를 낮추고 작게 말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점이 많았다고 하였다.

- 의료진들이 소리를 작게 소근 거리면서 말할 때 느끼는 점이 많았구요.

- 분만실 안에 있는 의료진은 거의 침묵을 지키다가 꼭 해야 할 말만 작은 소리로 말하고... 아기의 첫 순간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 르바이에 분만법은 의료진의 편의성을 조금은 양보하면서 아기와 산모에 대한 배려를 하는 분만법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나 참여자 중에는 한 학생만이 르바이에 분만에 대해 다소 실망스러웠던 경험을 표현하였는데 분만을 시행하는 의료진이 분만법의 원칙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에 해당하였다.

- 르바이에 분만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원칙이 안 지켜질 때는 좀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와서 소리를 낮추지 않고 바쁘게 말할 때는 전체 르바이에 분만을 위해서 준비한 분위기가 깨지면서...

주제 7. 간호의 의미를 되새겨 본 시간

르바이에 분만 실습은 학생들에게 간호의 대상자의 영역을 확장하여 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산부뿐 아니라 가족 일원 모두가 간호의 대상이 되며, 가족간호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또한 전체 르바이에 분만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실무 간호사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다.

- 우리 간호영역이 말 못하는 태아와 같은 존재에도 미친다는 것이 흐뭇했구요. 아기의 입장에서 간호를 제공한다는 부분이 좋았어요.

- 분만실 수간호사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르바이에 분만에 숨은 주역이라고 할까... 분만 전부터 르바이

에에 맞는 분위기를 만드시고...(중략) “정말 잘하고 있다”고 “용기를 내서 조금만 더 힘내자”고 하시면서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셨어요.

- 아빠들이 아기의 탄생을 도와주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조정자의 역할이라고 할까? 사랑한다고 아기에게 말해주세요요. 고생했다고 말해주세요... 그제서야...(후략)

범주 4. 기존 분만과 비교됨

주제 8. 일반적인 분만방법의 문제점 인식

모든 간호학생들은 이전학기까지 일반 종합병원에서 시행하는 일반적인 분만에 대한 실습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만과 르봐이에 분만방법에 대하여 무의식적으로 계속적인 비교를 하였다. 학생들은 두 분만에서 생명의 탄생에 대한 감격스러움은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번 르봐이에 분만을 보면서 태아에게 그리고 산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회상하며 반성하였다.

-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분만은) 보통보다 밝은 정도... 음... 수술실 정도로 밝은 불빛에서 시끄러운 기계소리에 산모의 신음소리, 의료진의 큰 목소리가 가득 찬 공간이죠... 물론 생명의 탄생에는 감격스러움을 느꼈지만...

- 이전까지의 보통의 분만은 의료진과 산모 위주의 분만법이었다면 이(르봐이에) 분만법은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태아를 배려해준다는 점에서...

- 어두운 자궁에서 막나온 아이에게 보통 이상의 밝은 조명을 비추었던 것(기존의 분만) 자체가 지금 생각하니 너무 지나쳤던 것은 아닌가...(후략).

주제 9. 미래에 자신도 선택해보고 싶은 분만법

간호학생들은 르봐이에 분만에서 받은 긍정적인 느낌을 미래에 자신의 분만방법으로 선택하고 싶다고 하였다. 자신은 나중에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한 학생은 르봐이에 분만실습을 한 후에 아기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고 이렇듯 배려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분만방법을 선택하고 싶다고 하였다.

- 실습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기를 낳지 않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기를 낳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낳더라도 좀 이런 배려있는 분만을 꼭 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앞으로 결혼을 한다거나 가족들이 분만을 한다면 가족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을 정도...(후략)

- 선생님께서 아기를 안고 엄마에게 젖을 물려주는데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더 르봐이에 분만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죠. 나도 다음에 아기를 낳을 때 르봐이에 분만을 해보고 싶다는...(후략)

논 의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학생들은 르봐이에 분만에 참여한 경험을 긍정적인 의미로 평가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로서, Kang (1989)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학생들이 분만실 실습시 ‘외음부 삭모’, ‘내진시 수치감’, ‘만삭된 산부의 팽창된 복부’, ‘회음부 절개시’, ‘분만시 질출혈’, ‘아두 만출하는 순간’, ‘흡인분만시’, ‘태반 검사시 피냄새’ 등의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분만실 실습을 한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개방적인 자가 보고의 설문을 실시한 Cho (1994)의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심리적 반응과 더불어 ‘공포감’, ‘긴장감’, ‘놀라움’, ‘무력감’, ‘무감동’, ‘혐오감’, ‘피할 수 없는 운명’, ‘힘들어 보인다.’ 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 연구인 Lee와 Oh (2011)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분만관찰 경험에 대한 주관성을 Q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간호학생들의 분만관찰 경험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간호학생들이 분만의 부정적인 부분을 당연시 여기고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이며 간호학생들은 출산 후 느끼는 성취감과 생명탄생에 대해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이 분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거의 도출되지 않은 것을 논의해 보면, 이러한 설명 이외에 첫째, 르봐이에 분만의 환경이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이 언급했던 분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각적인 자극이 낮은 조도에 의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와 다르게 시기적으로 2000년 이후 부드러운 분만(Gentle birth) 운동의 영향을 받아 분만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난 후 연구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Kang (1989)과 Cho (1994)의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이 분만현장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한 2가지 측면은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상황과 가족과 떨어져 혼자 분만 통증과 공포를 견디는 비지지적인 상

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르봐이에 분만의 환경은 조용하고 편안한 분만실 환경을 위하여 조명과 소음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구 부딪히는 소리를 줄이고, 필요 시 속삭이는 정도로 말하며 방의 밝기도 100~200 Lux 정도의 조명만을 사용하여 형체만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남편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진통과 분만을 하도록 하고 있다(Park, 2010). 산부와 아기를 위한 분만환경 조성이 간호학생의 분만경험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Nilsson, Bondas와 Lundgren (2011)의 질적 연구에서 부정적인 분만 경험을 가진 산부는 추후 분만에서도 산부의 마음을 자극하여 공포감, 외로움, 자신이 분만을 잘 해나갈 것이라는 믿음의 상실, 그리고 의료인의 도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간호학생이 분만실습 후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본인의 분만 및 간호 대상자의 분만간호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긍정적인 분만 실습 경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르봐이에 분만실습은 간호학생들의 긍정적 분만 태도를 형성하는데 적합한 분만법이라고 생각한다.

주제 2 <가족이 중심이 되는 분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간호학생들은 분만 동안의 남편의 지지를 포함한 가족 중심의 분만간호에 깊은 인상을 받았음을 보고하였다. 남편의 지지는 분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Jang & Park, 2002; Shin, 1996). 그러나 한편 Oh, Lee, Kim, Min과 Park (2006)에 따르면 단지 가족 분만실에서 함께 있다는 것 자체로 분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순히 장소만을 제공하는 가족분만이 아니라, 산부의 분만 자신감과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을 사전에 제공하여 분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는 본 연구의 주제 7 <간호의 의미를 되새겨 본 시간>이 관련을 가진다. 전체 르봐이에 분만을 아우르고 환경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부를 지지하고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비아빠에게 미리 교육하는 등의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간호사의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간호학생들과 분만하는 가족들은 성공적인 르봐이에 분만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 4 <조용하고 경건한 분만실>에서는 독특한 환경적 요소를 강조하는 이 분만방법 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놀랄 만큼 낮은 조도의 조명과 조용한 가운데 산부가 좋아하는 조용한 음악 그리고 의료진의 소곤소곤한 말소리는 신생아에 대

한 배려가 충실하게 지켜지는 환경적 조건이다.

간호학생들은 산부들이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비명을 지르는 것을 자제하며, 아기와 자신에게 긍정적인 분만이 될 것을 기대하며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협조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Fraser와 Hughes (2007)는 성, 임신, 출산에 관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여성들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르봐이에 분만을 선택한 산부의 경우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분만 방법을 선택하였으므로 분만과정에서 자신감과 자기 통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본 실습과정을 통해 분만에 있어서 산부의 주도적인 선택과 의료인에 대한 신뢰감이 산부의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rk (2010)은 르봐이에 분만 참여군과 비참여군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르봐이에 분만법은 산부의 분만지각, 분만 후 통증, 신생아 통증, 모성애착행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음을 보고하였다. 즉, 이 분만법이 산부의 분만 경험 지각을 긍정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며, 분만 후 통증을 감소시키고,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비폭력적 환경조성과 인격적 시술로서 신생아 통증을 감소시키며, 결과적으로 모성애착행위를 보다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고하였다. 의료진과 가족의 지속적인 지지 속에 조용하고도 인격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분만과정을 접근하는 것이 산부의 만족감을 높이고 분만과정을 긍정적으로 느끼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부의 만족감과 직접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도출된 주제 9 <미래에 자신도 선택해 보고 싶은 분만법>에서 간호학생들은 미래에 자신의 분만에도 선택하고 싶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분만이라는 심층면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분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간호학생들은 어두운 분만실에서 시술을 하는 의료진에 대한 경험을 주제 6 <의료진의 편리함을 산부와 아기에게 양보함>이라는 주제로 표출하였다. 간호학생들은 안전한 시술을 내세워 의료진 위주의 과도하게 밝은 일반적인 분만실과는 다르게 어둡게 하고 필요시 작은 부분조명으로만 가족의 분만 분위기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보고 놀라움을 표현하였다. 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분만실의 풍경과는 다르게 의료진끼리 소리를 낮추고 대화하며 가족에게는 상호작용을 하도록 격려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Park (2002)에 따르면 현대 산과학의 발전과 함께 분만환경은 점차 의료인에게 편리하게, 또한 의료인이 주도하는 환경으로 변해갔으며 정상

임산부들과 고위험임산부들의 구별 없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시행되는 이러한 분만환경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atthews와 Callister (2004)는 20명의 초산모들을 심층면담한 결과, 참여자들은 분만이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생애 사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분만동안 의료인 중심이 아닌 대상자 중심으로 그들의 위엄(dignity)을 지켜주면서 간호했던 것에 대해 중요하게 느끼며 감사했던 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분만현장에서는 분만방법에 대한 선택권과 편의성에 대한 주도권이 의료전문직에서 출산하는 여성들 및 가족 중심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2000년대 이후로 국내 분만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한 부드러운 출산, 그리고 여성의 자기주도적인 출산 등은 저출산 경향, 소비자 권리의식 고취, 그리고 인터넷으로 인한 대중의 정보 의사소통 능력 상승과 더불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Kim, 2003; Park et al., 2000).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여성건강 간호학 영역에서의 근무하는 간호사는 대상자의 의식과 행동변화를 더욱 고려하여 간호해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르봐이에 분만에 참여한 간호학생들의 경험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탐색하고자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르봐이에 분만에 참여한 간호학생들은 『힘이 들어도 아이를 생각하며 참아내는 산부와 남편의 지지가 바탕이 되어, 존중과 배려 속에서 아기의 울음대신 미소와 함께하는 경건한 가족의 축제가 된 분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상자에게 편의를 양보한 채 불편함을 감수하며 성공적인 분만진행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간호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었고 기존의 분만과 비교하게 되어 미래 자신의 분만에도 적용하고 싶어지는 경험』이 되었다고 하였다.

르봐이에 분만을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간호학생들은 신생아를 인격체로 여기며(the infant as a person), 배려하고 산부에 대한 남편의 지지가 돋보이는 가족분만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학생들은 분만하는 여성들이 르봐이에 분만을 선택하고 가족과 함께 분만을 주도해나가는 모습을 의미있게 느꼈으며 그 과정에서 간호사가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하거나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르봐이에 분만에 참여하는 당사자인 산부와 남편의 경험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둘째, 객관화 되고 실증적인 지표를 포함하는 양적 연구설계에 기반한 연구로 르봐이에 분만의 효용성과 효과성이 좀 더 평가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르봐이에 분만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간호학생의 르봐이에 분만 실습경험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실습교육에 있어서 많은 간호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추천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uckley, S. J. (2009). *Gentle birth, gentle mothering*. Berkeley, CA: Celestial Arts.
- Cho, J. H. (1994). A review of responses of nursing students following clinical maternity nursing practice. *Korean Journal of Maternal Child Health Nursing*, 4, 41-51.
- Choi, Y. H. (1985).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Soomoonsa.
- Fraser, D. M., & Hughes, A. J. (2007). Perceptions of motherhood: The effect of experience and knowledge on midwifery students. *Midwifery*, 25, 307-316.
- Hah, Y. S. (1994). A study on self-actualization level of junior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24, 499-510.
- Jang, M. J., & Park, K. S. (2002). Effect of family-participated delivery in a labor delivery room on the childbirth of primipara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8, 371-379.
- Jeong, H. J. (2010). *The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spousal caregiving experience for the patients with early dementia-colaizzi's method of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Jung, O. B., & Park, H. J. (2011). Experience on delivery room practice of male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7, 64-76.
- Kang, J. H. (1989). A study on stress of the nursing student in delivery room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19, 203-211.
- Kang, Y. S., Cho, H., Roh, Y. S., Boo, E. H., & Ahn, K. H. (2006). The effects of cooperative clinical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the competency and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 13-20.
- Kim, J. H. (2003). *Experiences of self-directed birth: The birth of new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Y. M., Chun, N. M., Lee, E. H., Cho, I. S., Ahn, S. H., Kim,

- J. I., et al. (2011). Student experienc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e in women's health nursing.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7, 225-242.
- Leboyer, F. (2009). *Birth without violence* (Rev. ed.). Rochester, NY: Healing Art Press.
- Lee, K. S., & Oh, J. H. (2011). The observation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toward deliver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 1278-1288.
- Matthews, R., & Callister, L. C. (2004). Childbearing women's perceptions of nursing care that promotes dignity.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33, 498-507.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OECD health data 2011*. Retrieved February 3, 2012, from <http://stat.mw.go.kr/stat/data/>
- Nam, S. B. (2011, December 23). *The birth with keeping baby's human right*. *Segyeilbo*. Retrieved from <http://local.segye.com>
- Nilsson, C., Bondas, T., & Lundgren, I. J. (2011). Previous birth experience in women with intense fear of childbirth.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39, 298-309.
- Oh, J. H., Lee, H. J., Kim, Y. K., Min, J., & Park, K. O. (2006). The effect of childbirth education and family participated delivery in a labor-delivery-recovery room on primiparas' anxiety, labor pain and perception of childbirth experience. *Clinical Nursing Research*, 12, 145-156.
- Park, M. I. (2002). *The concept of gentle birth/active birth*. Unpublished manuscript, The Korean Association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 Park, M. I., Shin, D. Y., Bae, J. Y., Kim, H. H., Chung, S. R., Kim, K. H., et al. (2000). A case of water birth.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43, 322-329.
- Park, M. R. (2010). *Mothers' perception of childbirth experience, labor pain, newborn's pain and maternal attachment behaviors with leboyer meth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Pettle, A. (1978). Gentle birth. *Canadian Family Physician*, 24, 1186-1188.
- Sharif, F., & Masoumi, S. (2005).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BioMed Central Nursing*, 4, 6. Retrieved February 3, 2012 from <http://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1298307/>
- Shin, K. R., Ko, M. S., Kong, B. H., Kim, K. S., Kim, M. Y., Kim E. H., et al.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Shin, G.-S. (1996). Analysis pregnant women's perceived delivery experiences according to delivery supporter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 5-24.
- Yeo, J. H. (2001). A Nursing college women's meaning of labor and delivery: Phenomenological method.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7, 203-211.